



문화전당에서 송년 추억 담아요 26일 오후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옆 폴리작품 '광주사랑방(프란시스코 산인 작)'을 중심으로 LED 등 조형물이 설치됐다. 시민들이 폴리와 LED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연말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노선 절반이 바뀐다

급행 포함 4개 신설·45개 변경 통합·사각지대 마을버스 확대
10년만에 개편·내년 2월 시행...배차 10분 단축 102개 노선으로

광주시내버스 노선이 내년 2월 전면 개편된다. 기존 노선 중 절반 이상의 노선이 조정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급행버스를 포함한 4개 노선 신설, 45개 노선 변경 및 통합, 시내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광주시내버스 노선개편 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가 마련한 최종 용역안에 따르면 기존 98개 노선 중 절반인 49개 노선이 조정되며, 전체 노선 수는 4개 노선이 신설되면서 102개가 된다.
36개 노선이 단축되거나 경로가 변경되는 등 조정되고 신설 4개, 분리와 통합이

각 3개씩이다.
이번 시내버스 개편안은 신규 택지지역에서 주요 경제생활권 연결을 위한 급행버스 노선 신설과 대중교통 소외지역이었던 용봉지구와 석곡동에 노선이 새롭게 보강된 것이 특징이다.
정류장 2~3곳을 묶어 30~40분에 주파하는 급행버스로는 수안 03번이 신설되고, 선운14, 양산60, 충호 188번도 새롭게 선보인다. 선운14번과 양산60번은 사실상 급행기능을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수원지구에서 효천지구를 잇는 수안 03번은 지난 9월부터 시범운행중으로, 하루 1만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시내버스 신설노선

수안03	수원지구~운남지구~광천터미널~전남대~조선대~광주대~효천지구	급행
선운14	송산유원지~선운지구~광주여대~시청~리마다호텔~518공원~광천터미널	급행기능
양산60	용전~건국동파출소~지산중~양지마을~양산제~운암중~광천터미널	급행기능
충호188	소쇄원~평촌~4수원지~청룡학생아영장~신촌~효령노인복지타운	

수안11번과 선운101번, 지원 150번과 지원152번, 일곡180번과 용전184번은 각각 통합한다. 반면에 상무22, 문흥48, 임곡 90번은 첨단23, 문흥48, 송정88번 등으로 새로 나뉜다.
평균 노선 길이는 기존 23.3km에서 22.8km로 2.1% 주는 데 그쳤지만, 평균 주행 시간은 71.4분에서 61분으로 14.1% 줄 것으로 예상됐다.
버스 평균 배차시간도 42분에서 32분으로 10분(23.8%)이 단축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비효율적인 노선은 단축하는 등 합리적인 노선개편으로 노선길이와 배

차간격을 줄였다고 강조했다. 또 주행시간을 줄여 운전원 근무여건 개선과 안전성 확보 등에도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노선 개편은 2004년 도시철도 1호선 개통 이후 지금까지 9차례 부분개편은 있었지만 전면 개편은 2006년 말 준공예정 시행 이후 10년 만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선 개편시 현재 운행중인 998대보다 47대 증차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과학적 분석을 통해 현 대수를 유지했다"며 "연간 77억원의 운송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非朴 오늘 탈당·교섭단체 등록...4당 체제 재편

'개혁보수신당' 내달 24일 창당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로 구성된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추진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집단탈당 및 분당을 공식 선언하기로 26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조기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일단 4당 체제로 재편되게 됐다.
(관련기사 4면)
개혁보수신당 창당추진위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대변인인 오신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오 의원은 "내일(27일)은 30명 안팎이

탈당 선언을 할 것이고, 다음달 초에 2차적으로 소규모 탈당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포함하면 원래 예상한 인원수인 34명 정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당추진위는 분당 선언 직후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하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즉각 소집해 원내대표 선출 일정 등을 논

의하기로 했으며, 공식 창당일은 다음달 24일로 결정됐다. 창당추진위는 또 신당의 정당정책과 관련해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28일 자체 안(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무성 전 대표는 탈당과 내부에서 정당정책에 관한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 보도에 잘못된 게 많다"면서 "보수 정당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많은 주장이 나오는데, 토론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기춘·우병우 몰라...獨 재산 없다" 국조특위, 최순실 '감방 신문'

특검, 김기춘 자택 등 압수수색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는 26일 지금까지 자신과 관련해 제기된 비리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씨는 이날 서울구치소 수감실에서 2시간 30분가량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의 비공개 청문회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운영 비리, 재단 기금 출연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여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과의 연관성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독일에 재산이 한푼도 없으며 (딸)정유라는 이대에 정당하게 들어갔다"고 밝혔다고 신문을 벌인 국조위의 원들이 전했다.

한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26일 오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집무실과 자택 등 10여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

이로써 현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 전 실장을 겨냥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은 안중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문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사료가 수리된 정관주 전 차관을 27일 소환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 전 실장 자택에 수사를 보내 비서실장 시절 업무 관련 기록과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이기도 하다. 한 국민예술단체총연합회 등 12개 문화예술단체는 김 전 실장이 2014년 8월 세월호 참사를 풍자한 흥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호일'의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막았다고 주장하며 이달 12일 특검팀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작년 7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진수 비서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이기도 하다. 한 국민예술단체총연합회 등 12개 문화예술단체는 김 전 실장이 2014년 8월 세월호 참사를 풍자한 흥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호일'의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막았다고 주장하며 이달 12일 특검팀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작년 7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진수 비서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천정배 대선 출마 선언 "혁명적 개혁 이루겠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26일 "혁명적 개혁을 이루겠다"며 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주권 중심의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특권과 패권주의를 끝내야 한다. 혁명 대열의 맨 앞에서 모진 비바람을 맞으며 새 길을 뚫겠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이어 "민주정부 10년은 호남 민심이 창조해낸 빛나는 역사였다"며 "호남이 정치 상수였을 때에만 한 국의 개혁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는 "호남은 개혁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영남 후보에게 두 번이나 표를 던지며 스스로를 희생했다"며 "하지만 그들은 패권주의적 행태로 인해 정권교체를 이루지도 못하고 호남에 호남후보 불가론의 굴레만을 덧씌웠다"고 민주당의 친노·친문 세력에 날을 세웠다. 반면, 새누리당 비박계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개혁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간다는 전제에서 그분들과 함께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눈에는 12월-따뜻해진 겨울 ▶7면
2016 국내·국제 10대 뉴스 ▶18면
정조국 빈자리 이증서가 있다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